

##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문집 30년만에 다시 부르는 노래 (유신독재를 넘어 민주로)

- 엮은이 :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펴낸이 : 이상경
- 펴낸곳 : 자인
- 발행일 : 2005년 5월 13일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틴 이명준 씨 부부를 숨겨주다 많은 수배자들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중 한 인물이 오늘날까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살게 된 내 남편 문국주인 걸 보면 사주는 고쳐도 팔자는 못 고친다는 말이 맞는지, 피해가려 해도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경로는 이렇듯 정해져 있었나 보다. 부끄러웠던 기억이지만 이제 긴급조치 시대를 정리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여 잊었던 기억 조각들을 엉성하게나마 끼워 맞추어 보았다. 혹시라도 틀린 점이 있었다면 내 기억력 탓이려니 흐르는 세월을 어찌 막을 수 있겠는가.

## 부르지 못한 노래-먹구름 덮인 '74년



전 재 주\_ 서울대 영어영문학과 74학번. 한국외환은행 차장, ㈜삼원월드와이드대표, 한국능률협회 매니지먼트컨설턴트, 오일코리아 이사(현)

1974년 입학 직후, 공릉동 교양과정부 뒷산 마른 잔디밭에 누워 바라본 3월 하늘은 눈부시게 파랬다. 나는 신입생의 들뜬 기분으로 혼자서 생각했다. 이처럼 아름다운 대학을 4년이 아니라 한 8년쯤 다닐 수만 있다면...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대학을 8년 만에 졸업하게 되고 말았다.

74년 4월, 하숙집에서 신문 전면을 뒤덮는 시커먼 활자를 보았다. 전국대학생들이 국가변란을 획책한 사건을 막기 위해 긴급조치 4호를 발동한다는 내용이었고 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할 수 있다는 엄청난 내용이었다. 인민혁명당 재건과 민청학련 사건이 터진 것이다. 나는 당시 TV에 나오는 험악한 자수권고를 보면서 며칠 전 참가한 적이 있는 농법회 MT를, 신고해야 하는 불온한 모임이 아닌가 은근히 걱정하였다. 나는 4학년이던 고교 선배 이현범의 권유로 농촌법학회에 가입해 있었던 것이다.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암울했던 시간은 이렇게 시작되었고 꿈에 부풀었던 74학번의 대학생활은 검은 먹구름 뒤덮인 음울한 시기로 접철되었다.

음울한 사건이 휩쓸고 간 현실과 달리 개강하자 나에게 달라진 것은 없었다. 술과 미팅과

뭔지 잘 모르지만 아무튼 떠들어야 한다는 강박감에 주절거리던 각종 토론과 그런 것들 속에서 1학년은 흘러갔다. 학회 활동은 지속되었지만 MT에 참가할 때의 신나는 기억을 제외하곤 경제사 학습과정은 내 취향과 동떨어지고 현실감 없는 것이었다. 나는 <죄와벌>을 읽고 인문계를 택한 만큼 문학이나 철학 같은 것을 배우고 싶었다.

한번은 선배가 농촌에서 벼에 싹이 나오도록 수확하지 않는 것을 보았노라며 이는 생산비에 도 미치지 못하는 농업소득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를 듣고 나는 그것은 농촌의 현실에 맞지 않는 논리라고 반박한 적이 있다. 나는 하루하루 일을 해서 끼니를 이어가는 나의 아버지가 남의 수확을 돕다가 결국 우리 한패기 논이 수확 시기를 놓치고 비에 젖어 싹이 나와서야 밤을 틈타 베어 나르던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다. 적어도 우리 집에서는 생산비 어찌고 하는 사치스런 계산이 문제가 아니라 내 것을 수확할 시간마저 없는 현실이 문제였던 것이다.

#### 부르지 못한 이름 문맥회

2학년이 되어 캠퍼스가 관악산으로 이전하였다. 그때 인문대 내에 학회를 설립하자는 제안이 들어왔다. 나는 당연히 이 제안에 적극적이었다. 여러 학회에서 활동하던 인문대 출신들이 노량진 어느 중국집에 모여 문리대의 맥을 있다는 뜻으로 '문맥회'라는 이름을 정하고 신입생 모집 방침을 세웠다.

당시 문맥회의 설립을 주도한 사람들은 양관수, 문형우, 박인배, 유관우 등 문리대 출신 71, 72학번이었다. 문리대가 관악으로 옮겨오면서 인문, 사회, 자연대로 나누어지자 이전 문리대에 있던 '한국문화연구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각 대학에 별도의 학회를 설립하기로 의견을 모은 결과였다. 문리대의 '한국문화연구회'는 이전의 '후진국사회연구회'가 71년 위수령으로 해체된 후 이름을 바꾸어 명맥을 이어왔던 것이다. 75년에는 이를 다시 3분할 하여, 인문대는 72학번 문형우가 중심이 되어 문맥회를 설립하고, 사회대는 71학번 양관수가 중심이 되어 '사회복지연구회'를 설립하였다. 자연대에 설립하려던 '과학사상연구회'는 구성원을 채우지 못하여 소멸되고 말았다. 문제는 '문맥'이라는 이름이었는데 고려대학에서 '청맥회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속된 사건이 연상되었기 때문에 문맥회라는 이름은 내부에서만 통용되는 이름이 되고 말았다. 75년 학회 등록시에는 '동양고전연구회'라는 가명

을 써서 내가 회장으로 등록하고 정식으로 신입생을 뽑았다.

3월 말 즈음 문맥회 설립모임에 나온 적이 있는 72학번 박인배가 나를 다방으로 불러냈다. 박인배를 만난 다방에는 나 외에도 한 명이 더 있었다. 박인배는 4.3데모 계획을 말하고 캠퍼스의 구조를 물었다. 나는 박인배가 묻는 대로 관악캠퍼스의 지형을 자세히 설명하였고 역할을 배당받았다. 나의 역할은 후배들을 동원하는 일이었다. 예정대로 4.3 데모가 터졌고 며칠 후 연이어 4·7데모가 터졌다.

나는 두 번째 데모 후 집에서 연행되어 남부서로 끌려갔다. 이미 내 이름도 수사선상에 올라 있었고 취조가 시작되었다. 순진했던 나는 선배들 이름을 듣고 난 후에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난 것으로 생각하고 박인배와의 만남과 데모 동원을 모두 실토했다. 나중에 들었는데 박인배는 당시 내 이름을 불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내가 불은 사실을 근거로 더 혹독하게 당했다고 한다. 며칠을 조사받고 있을 때 고등학교 선배를 자처하는 송모 형사가 나타났다. 관악 학원반장이었던 그는 망원렌즈에 잡혀있는 내 모습에 붉은 사인펜으로 구속이라고 표시해놓은 사진을 들고 와서 보여주었다. 그는 "짜식아, 너 신세 조지고 싶냐?"면서 안타까움을 표시하였다. 나는 당시 체념 상태였으나 아뭏튼 고교 선배인 송 형사의 배려로 구속을 면하고 풀려나왔다.

두 번의 데모가 있는 다음날 신문지상에는 74년 민청학련 사건 못지않은 엄청난 사건이 대서특필되었다. 75년 4월 8일, 1년 전 민청학련 사건으로 체포된 인혁당 관련자 8명이 처형되었고 고려대학교에만 적용하는 긴급조치7호가 발동되었다. 각 대학에는 휴교령이 발동되었고 4월11일 농대생 김상진 열사의 할복 사건이 있었다. 얼마 안 가서 5월 초에 긴급조치9호가 발동되었다. 헌법을 포함한 모든 법의 상위에서 긴급조치 자체와 정권에 대한 논의와 비판을 원천적으로 금지한 자가순환적 조치인 긴급조치9호는 참으로 기괴한 법령이었다. 양심과 언론 출판의 자유를 압살한 현대사의 암흑기의 정점이었다.

거친 숨소리를 뿜으며 달려가는 기차처럼 치닫던 75년 봄은 다시 5·22 데모로 그 절정을 맞았다. 이날 아크로폴리스에서는 도시락을 젓밥으로 삼아 김상진열사 추모제가 열렸고, 인혁당 사건과 민청학련 사건이 조작이고 허위라는 성토가 있었다. 나는 데모대에 합류해 있었는데 그때 1학년 때 지도교수였던 서양사학과 오인석 교수의 눈에 띠었다. 오 교수는 저항하

는 나를 한사코 잡아 끌며 데모대에서 빠져 나오게 했다. 나는 이기지 못하고 끌려나와 다음 시간 수업에 들어갔고 천운으로 출석체크를 하게 되었다. 수업을 마친 후 다시 시위에 참가한 나는 사방에서 습격해 들어오는 경찰들에게 포위되어 남부서로 연행되었다.

남부서에는 백여 명 이상의 학생들이 연행되어 있었고 밤샘조사가 이루어졌다. 나는 사태가 심각함을 깨닫고 최대한 순진한 표정과 어투로 수업을 마치고 다른 강의실로 이동하다가 연행되었음을 하소연하였고 출석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호소하였다. 그때 연행된 학생의 상당수가 수업을 위하여 이동하던 중 끌려온 것도 사실이었다. 우리는 유치장 안에 열댓 명씩 수용되어 14일 간 갇혀 있었다. 도중에 몇몇은 다시 불려나간 후 돌아오지 않았고, 구속되어 구치소로 넘어갔다. 마침내 남부서 유치장에서 풀려 나왔을 때 나는 연행 직전 수업에 들어가 출석체크한 것이 천운으로 작용했음을 알았다. 긴급조치9호의 위력을 보여주기 위하여 대량으로 처벌한 5·22사건에서 구속되거나 제명당한 학생들의 상당 부분은 운 나쁜 일반 학생들이었다.

연달아 터진 75년 4, 5월의 데모는 문맥회를 초토화시켰고 폭풍이 몰아 친 후에 남은 것은 폐허뿐이었다. 아니 나는 당시에 선배들이 데모를 조직하기 위해 문맥회를 만들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당시 박인배는 구속되었고, 문형우, 유관우, 권영기 등 문맥회 설립 주도자 3명은 제명되었다. 3, 4학년은 모두 사라지고 2학년은 흩어져 나와 국사학과 권희영 둘만 남았다. 선배 없이 2학년 두 명의 힘만으로 1학년을 수습하기는 어려웠다. 학습을 위한 성원조차 안 되어 우리는 1, 2학년 통합으로 공부를 하였고 다른 학회의 지원을 받아야 했다. 75년에는 '사회복지연구회'와 통합세미나를 했고, 76년 중에는 아카데미 활동을 하던 중문과 73학번 박재우가 우리의 세미나를 도왔다. 박재우가 군대에 입대한 후에는 철학과 71학번 김재명이 방위소집 중에 세미나에 합류하였다. 방위소집 중에 후배를 지도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양쪽 모두에게 극히 위험한 일이었다. 그러나 김재명 선배는 가발을 쓰고 우리들 모임에 참여하곤 했다.

75년 2학기에는 지도교수를 구하지 못해 학회 등록을 포기하였다. 5·22 이후 학원에 진주한 경찰들은 아예 학생과에 상주하며 학생들의 동태를 감시하였고 막말로 사람들 셋만 모여도 체크되는 상황이었다. 캠퍼스는 학생과 짝새들이 공동 기거하는 공간이 되어버렸고 학

생들의 대내외 활동도 현저히 위축되었다. 나는 두번의 연행으로 노출되어 거의 밀착감시를 받는 형국이었다. 75년 가을에는 안기부 학원담당관 이진봉이 나를 불러 “자네가 후배들을 모아 빈 강의실에서 의식화하는 것을 파악하고 있다”며 협박까지 하는 상황이었다. 나는 모르는 것 투성이였고 후배들을 지도할 능력도 못되었지만 문맥회의 끈을 놓지는 않았다. 자꾸 약화되고 흩어지려는 후배들을 뒤쫓아 다니던 어느날, 75학번 후배들에게서 선배의 도움없이 자체적으로 세미나를 해보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나는 무력한 느낌을 받았으나 달리 방도도 없었다. 다행히 1학년들의 반란은 얼마 안 가서 정상화되었다. ‘역사철학회’로 이름을 바꾼 76년에는 꽤 많은 신입생을 확보했고, 여름방학에는 하기농촌활동을 계획할 만큼 학회의 형체가 갖추어졌다.

#### 76년 10.15 축제데모

76년 2학기가 시작되자마자 한국사회연구회의 김창우한테서 “해야 할 일이 있지 않겠느냐”는 제안이 있었다. 꼴을 받은 것이다. 나는 피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준비는 덜 되어 있었다. 도서관 앞을 같이 걸으며 나는 말했다. “조금 두렵다.” 김창우는 말했다. “괜찮다. 선배들이 다들 받아준다.” “그런데 팀은 짜졌나?” “준비중이다. 조금만 기다려라.” “알았다.” 김창우의 말은 옳았다. 내가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은 내 앞에 많은 선배들이 이 길을 갔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한 내 뒤에 동지들이 이 길을 걸어 올 것임을 믿기 때문이기도 했다. 우리는 역사의 힘을 믿고 이 길을 걷는 것이고 그래야 한다고 후배들한테 역설해 온 것 아닌가?

그러나 나는 다른 문제를 하나 안고 있었다. 나는 1남6녀 중 장남이었고 가난한 집에서 취직 안 하고 감옥에 있겠습니다 하고 말할 용기를 내기 어려웠다. 재수없게 공부 잘하는 오빠를 둔 덕택에 바로 밑의 두 동생은 중학교에 진학하지도 못하고 공장에 다니고 있었다. 선임자라는 이유로, 남자라는 이유로, 나는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동생들과 평등하게 나눠 갖지 않고 독점한 셈이었다. 문제는 앞으로 네 명의 동생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무력한 아버지는 셋째부터는 반드시 중학교에 보내야 한다는 나의 말에 묵묵히 한숨만 쉬었고, 나는 항상 심적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김창우와의 약속 뒤에 나는 준비를 서둘렀다. 우선 노량진 하숙집을 상도동 입주아르바이트로 옮겼다. 일기장은 없었지만 신변에 있는 자료 중에 세미나 기록을 비롯해 다른 사람과 관련된 내용을 모두 없앴다. 둘째는 역사철학회의 지도구조를 짜는 일이었다. 당시 3학년 권희영이 내부지도를 맡고 내가 각 학회 간 연결활동을 하는 모양이었다. 나는 2학년 중 이증연을 회장으로 하여 다른 학회 출신의 차기 지도부와 연결시키고 반병률과 채희석이 후배지도 및 내부관리를 하는 모양을 구축하고자 했다. 이들은 모두 다음해의 지도부들이었다. 나는 후배들을 하나씩 만나며 세 명만 의기투합하면 나라도 세울 수 있다고 역설하며 맡은 역할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였다. 김창우와는 정기적으로 만나기로 했으나 진전되는 것은 없었다. 조금 기다리라는 말뿐이었다. 이때 그는 양춘승 등의 1차 데모진을 구축하고 날짜는 잡는 중이었지만 당시의 나로서는 알 길이 없었다. 2차팀의 가동은 그 이후의 일이었을 것이다.

김창우는 당시 나에게 양관수와의 관계를 단절할 것을 요구했다. 불철저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당시 74학번은 이전 학번들의 낭만적인 운동방식에서 철저한 탈피를 추구하고 있었다. 단발성 데모 위주의 운동에서 벗어나 운동의 과학성과 혁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목표였다. 반동의 강고한 보루인 유신체제는 학생운동으로 붕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노동자가 중심이 된 민중혁명에 의하여 변혁될 수 있다는 것이 당시의 중심 이론이었고, 74학번을 필두로 한 긴급조치9호 세대는 현장론 일색의 분위기를 갖고 있었다. 이에 반해 양관수는 학생운동의 필요성을 여전히 강조하는 입장이 강했고 이것이 비판받는 이유였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양관수를 옹호하고 김창우가 제기한 단절문제에 대해 참고하겠다는 정도로 하고 그쳤다.

그러던 중 9월이 가고 축제 기간이 다가왔다. 축제 도중에 탈출반에서 허생전 공연을 준비하였다. 이것은 당시 억눌린 분위기를 깨고 사람들이 모이는 기회를 만들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기획한 것이었다. 분위기 자체도 쌍쌍피티 등과 달리 어느 정도 저항적인 것이 되리라 짐작할 수 있었다. 당연히 이 공연장으로 집결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터우기 5·22 이후 1년 반 동안 음산한 데모미수와 구속사건만 몇 차례 있었지 얼음짱같은 분위기를 깨뜨릴 어떤 움직임도 없었기 때문에 운동권 내부에는 무언가 안달하는 분위기까지 있었다. 모두들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막판에는 총장을 설득하여 막걸리를 내놓는다는 것까지

알려져서 분위기를 고무시켰다. 한마디로 판이 좋았던 것이다.

10월 15일 저녁에 공연된 허생전 공연은 대성황이었다. 공연자의 빼어난 재담에 모두들 웃고 추임새를 넣으며 호응하였다. 막걸리와 함께하는 뒤풀이 시간이 되었을 때 공연자와 관객들은 하나가 되었다. 이때 양관수가 모닥불 주위를 돌며 진도아리랑을 부르며 춤추었다. 다들 일어나 함께 춤추며 모닥불을 돌았다. 모닥불을 돌던 무리는 자연스럽게 어깨를 걸었고 몇 바퀴 도는 순간 아리아리랑 하는 진도아리랑의 노래 가사는 점차 으샤으샤 하는 합성으로 바뀌었고 이내 ‘독재타도 유신철폐’의 구호로 바뀌었다.

나는 독재타도의 구호가 나오는 순간 내가 끼어 있던 줄의 방향을 바깥쪽으로 틀었다. 나의 줄이 맨 선두에서 유도하고 있는 형국이었기 때문에 행렬의 방향전환은 아주 쉬웠다. 지금도 나는 유신철폐 구호를 누가 선창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시위대로 변했을 때 이를 교문 쪽으로 유도해 나간 것은 나였다. 나는 맨 첫 줄 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었다. 기억이 맞다면 내 옆에는 75학번 이우재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막걸리에 얼큰하기도 했지만 이 흐름은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자연스럽게 형성된 시위대는 교문을 향하여 나아갔고 교문에서 경찰병력과 부딪혔다. 최루탄과 돌맹이가 날았고 현장에서 몇 명의 시위 학생들이 연행되었다. 투쟁지도부 없이 발생한 시위는 밤에 열린 탓에 추가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여 오래 안가서 흩어졌다.

75년 5·22 이후 522일 만에 발생한 서울대 감골마당 축제데모 사건은 이렇게 발발하여 그렇게 끝났다. 나는 이날 정문을 피하여 담을 넘어 집에 돌아왔고 며칠간 학교를 안 갈 생각이었다. 그러나 나는 3일째 되는 날 새벽 2시쯤 상도동 입주아르바이트 학생 집에서 체포되었다.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자다가 깨어난 나는 머리맡에 세 명의 경찰들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신발도 벗지 않고 방 안에 들어와 있었다.

당시 내가 관련된 일은 많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무엇이 꼬투리가 되는지 초반에 파악하는 것이 무척 중요했다. 다행히 김창우 건과는 관련이 없었고 감골마당 축제데모 건임이 곧 밝혀졌다. 그러나 나는 연행되는 와중에도 심한 혼란을 느꼈다. 도대체 내가 있는 곳을 어떻게 알았을까? 의문은 관악서에 도착하면서 풀렸다. 담당 형사는 나를 찾느라고 노량진 바다를 3일 간 헤메노라고 말했다. 모든 게 명백해졌다. 노량진 하숙집 아주머니는 집에 질러

## 순수와 열정의 '70년대 광주

내가 리어카를 불러 이사가던 상황을 말했을 것이고 경찰들은 노량진 일대의 리어카꾼을 모조리 탐문한 것이었다. 나는 후회로 가슴을 쳤다. 왜 리어카를 이용했는가. 그러나 이미 옆질러진 물이었다.

관악서에 도착했을 때 경찰은 이미 나를 축제데모의 주동자로 지목하고 있었다. 밤중에 일어난 일이었지만 학생과 째새가 같이 뒤엉켜서 데모를 하는 판이었으니 내 얼굴이 알려졌을 것이다. 며칠간의 집요한 추궁이 있었다. 그러나 사실 나는 축제 데모를 준비한 것이 아니었고 나를 만한 증거도 없었다. 양관수와와 공모에 대해서도 추궁이 있었으나 완강하게 부인하였다. 나는 끝까지 단순 가담임을 주장하였다. 결국 나는 또다시 관악서에서 풀려 나왔다. 그러나 10월 26일자로 양관수와 함께 제명되고 말았다. 나는 무덤덤히 영문과 친구들과 작별하고 학교를 나왔다.

의도되기는 했으나 준비되지 않았던 10.15 감골마당 축제데모는 당시에 준비되고 있던 74학번 양춘승, 김천우, 박찬우의 데모를 지연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고, 김창우가 준비하고 내가 포함되었을지 모르는 2차팀을 와해시켰다. 1차팀의 박찬우가 진행되는 바람에 이들은 계획을 취소하고 잠수했던 것이다. 나는 제명된 후 학원 근처에서 김창우와 연락을 취하려고 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내가 연행되고 제명된 이상 그 역시 몸을 감추어야 하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새로운 데모에 대한 희망이 잦아들 무렵, 12월 8일에 생각지도 못했던 법대 졸업반 박석운, 이범영, 백계문의 데모가 터졌다. 이로써 76년 2학기는 저물고 방학으로 접어들었다.

나는 군에 소집되어 귀향하였다. 김창우는 후에 77년 4월에 고려대와 연루된 사건으로 노출되어 구속되고 말았다. 결국 나는 숨가쁘게 노래 연습을 하며 달려 왔지만 무대 위에 올라가서 제대로 노래 부를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만 형국이 되었다. 이때의 일은 나중에 74학번 동료들이 대거 구속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나의 마음 속에 이들에 대한 미안함으로 자리잡았다.



정용화 전남대 국어국문학과 74학번. 광주매일신문 논설위원,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전남대학교총동창회 상임이사(현),  
광주전남한반도포럼 공동대표(현)

70년대에 대하여 특별히 할 말은 없지만, 작성자 정용화 개인의 1970년대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이 글을 통해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들을 알리고자 한다. 실제 자료들이 전무한 상태에서 30여년이 지난 일들을 기억에 의존해 서술했으니 시간과 장소 및 이름 등에 대한 정확성은 좀 더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보강되어야 한다. 기억의 편린들을 모아 개인사 및 민주화운동에 관련된 내용들을 복원했으면 하는 소망이 간절하다.

1970년 3월, 광주일고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정용화(통합48회)는 이미 그해 2월 고교 1년 선배인 오국영(일고 통합47회, 나중에 학생회장에 피선됨), 이훈우(47회, 졸업 뒤 전남대학교 상대에 재학하다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수감됨, 현재 한겨레신문사와 관련된 회사에 재직) 등에 의해 광주일고 교내 독서모임인 '향토반'에 가입하여 활동하게 된다. 그 모임에서 제일 먼저 독서발표를 위해 읽은 책이 함석헌의 <뜻으로 본 한국역사>인 것으로 기억된다. 많은 토론을 거치면서 역사에 대한 눈을 뜨게 되고, 대학에 가서 '역사학'을 공부하고자